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

김철봉(사직동교회 담임목사)



마키아벨리(Niccolo B. Machiavelli)의 『전략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 행운이 미소 짓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이것만 게을리 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자마자 즉각 움켜잡을 수 있다. 좋은 기회는 당장 붙잡지 않으면 달아나기 마련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붙잡을 수 없다. 즉,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회자는 평생을 걸쳐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1. 평생 목회의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목회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평생 동안 붙들어야 할 주제는 한 가지이다. 바로 ‘사람을 살려내는 목회’이다. 이는 누가복음 19:10, 요한복음 10:10b, 고린도전서 15:45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온통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시다.¹⁾

1) 출3:13-14, 마22:31-32, 창2:7, 사45:5-6, 겔37:9-10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 분의 백성을 살리셨고, 그 분은 자신을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으며 심지어 에스골 골짜기의 말라비틀어진 뼈들조차 능히 명하여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²⁾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사람을 만드셨고, 하와에게도 이름 하시기를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 이름하셨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저 멀리 다메섹과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찾아왔다.³⁾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의 전력으로는 싸워 이기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롯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으로 밤새 쫓아가 이룬 결과였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이다.⁴⁾ 요셉은 열 일곱살 되던 해에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다. 그는 삶의 모진 풍상을 겪었으나 마지막 순간 위대한 신앙고백을 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창50:20-21)’. 그는 자신의 고난이 버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한다. 다윗도 그렇다. 다윗의 일생 역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생이었다.⁵⁾ 그 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린 히브리 산파⁶⁾,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애굽 공주⁷⁾ 모두 살리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살리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을

2) 창2:7, 창3:20

3) 창14:14-16

4) 창45:5-11, 50:20-21

5) 삼상17-25

6) 출1:17-20

7) 출2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다.⁸⁾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누가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한다. 이 뿐 아니라 복음서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라고, 즉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의 평생 주제는 “사람을 살려내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2. 목회자의 평생자세(딤후4:11-16)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목회자가 평생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한다.

1) 삶 전체에서의 모범 :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12절)야 한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는 대부분의 성도들에 비해 나이가 적었다. 이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연소하다는 이유로 디모데를 하나님 의 사자로 존중하지 않고 경솔히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의 본이 되라고 말한다. 여기서 ‘본’으로 번역된 τύπος 라는 단어는 본래 ‘때리다’, ‘두드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문자적으로 “두들겨서 생긴 자국”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본’이라는 말은 자기 희생을 전제하는 말이다. 지도자는 희생하는 사람이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 전통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돌격 구호에서도 볼 수 있다. 아랍 군대는 ‘돌격 앞으로!’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

2) 항상 ‘공부와 기도’에 힘써야 한다⁹⁾ :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

8) 요10:10, 눅19:10, 마4:23, 요4:14, 7:37,38,5:24,25, 눅24:32, 요6:53-58

9) 행6:4, 20:32, 엡6:17,18, 겔37:4-8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13) 연소한 나이로 에베소의 목회자라는 중임을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에 모범이 될 것을 명령했고, 이어 가르치는 직분에 전심 전력할 것을 권면한다.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어도 충분히 읽고 또 묵상해야 한다. 묵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 지고 말씀에 불을 붙여 주신다. 로이드 존스는 충분한 말씀 준비 위에 기도의 불이 임하는 것을 ‘logic on fire’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불타는 논리”가 되어야 한다.

3) 신언서판(身言書判)에서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14), 중국 당대(唐代)의 관리선정에는 네 가지 표준이 있었다. 이는 인물을 택할 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람을 평가 할 때나 선택하는 시기가 되면 예의 바른 몸가짐(身), 품위 있는 언어(言), 올바른 글 솜씨(書), 사물의 판단을 옳고 그르게 하는가(判)의 네 가지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身言書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장로회에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시대의 조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진중함이 있어야 양 떼들도 안심하고 따라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실력’을 쌓고 공헌해야 한다 :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15). 본문에서 ‘전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관심을 기울이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 일을 행하기에 꾸준히 하라’

는 의미이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일에 네 자신을 꼭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것들에 네 자신을 헌신하라’는 뜻이다(J. Stott).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 즉 앞서 언급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일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꼭 담그고 몰두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은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는 말과 같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꼭 잠겨야 하며 실력을 쌓고, 믿음의 진보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믿음의 진보가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기 개발(自己開發)의 가르침과 전도의 계속성을 죽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16).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한다. 목회자의 자기 개발과 가르침은 계속되어야 한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자기 개발과 가르침 그리고 전도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고, 부패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가르침과 전도를 죽는 날 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3. 말씀 묵상의 방법 ¹⁰⁾

말씀 묵상을 위해서는 새벽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맞이하는 새벽 5시~9시는 목사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 황금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¹¹⁾, 새벽에 도우실 것이라 말씀하셨다.¹²⁾ 쉴 틈조차 얻기 어려웠던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셨다.¹³⁾ 분주한 사역을 감

10) 뵤전1:8-12

11) 잠8:17

12) 시46:5

13) 막1:35

당하셨던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단호하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선언하심으로 승리하셨다.¹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목상하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베드로 전서 1:8-22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관찰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8). 관찰은 본문이 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 강조되는 단어와 분위기에 주의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2) 묵상 :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9-10).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기 위해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분석해 읽으면서 말씀과 나를 연결시킨다.

3) 해석 :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11). '상고한다'는 말로 사용된 ἐραυνῶντες는 '알기를 추구하면서'(NASV),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NIV)로 번역된다. 해석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과정이고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본문을 해석 할 때 몇 가지 생각하면 좋은 지침이 있다.¹⁵⁾

14) 마4:4

15) 『프리셋트 성경』(서울:프리셋트 출판사) p.27-28

- a. 문맥을 잘 살펴야 한다 : 문맥(context)은 본문(text)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구절을 빼어 그것으로 원하는 바를 말하게 만들지 말라. 저자가 말씀하는 바를 발견해야 한다.
- b.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가르침을 구하라 :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이고 광범위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체의 가르침에 보다 더 친숙하게 되면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 c. 성경은 결코 스스로 모순되지 않음을 기억하라.
- d. 그 구절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으라 : 성경의 한 부분을 해석할 때 언제나 저자의 마음 속에 있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 어떤 의미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4) 적용 :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12). 관찰하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적용'은 행하는 것이다. 적용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당회운영

1) 당회장으로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받아 조율해야 한다. 이 때는 모두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부목사, 선임장로, 당회서기, 재정위원장등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

2) 중요의제는 즉석에서의 결의를 피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안을 내면

의제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서로 간에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중요 의제를 낼 때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혹은 1년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리하면 덕을 세우게 되고 모든 것이 협력하게 선을 이루게 된다.¹⁶⁾

3) 어떤 경우에도 결코 화(분노)를 내지 말라.¹⁷⁾ 화를 내면 설교도 안되도 은혜도 끼칠 수 없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세 번 화를 내었는데¹⁸⁾, 이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애굽에 있을 때 공사 감독자를 죽임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분노해서 하나님 친히 주신 돌판을 깨뜨렸고, 미디안 광야에서 반석에 명하지 않고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10분을 참지 못하여 폭발해 버리는 분노의 현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화(분노)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필자는 젊은 목회자 시절 어느 임직식에 기도 순서를 담당하게 되었다. 임직예배를 시작하려고 그 교회 담임목사가 강단에 섰다. 그런데,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 교회 직원들이 노력했으나 마이크는 작동되지 않았다. 목사님은 화가 나서 마이크를 던져버렸다. 생각해보라, 화가 난다고 마이크를 던졌는데 어떻게 임직 받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겠는가? 그 날의 그 사건은 젊은 목회자였던 나에게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굳게 다짐했다. “나는 평생 강대상에서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일은 하지 않아야지”. 목회자는 반드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6) 롬8:28

17) 약1:19-21, 엡4:26,27, 잠16:32,24 15:18,2312:18,25:15

18) 출2:12,15/17:6=민20:10-13/32:15,16,19

5. 목회자와 말

인간은 ‘말하는 존재’(Homo loquens)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Deus loquens)이기 때문이다. 에밀 브루너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언어적 존재’로, ‘대화하는 존재’로 피조됐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뤄졌음을 증언하고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웅변한다. 또한 인간의 범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과 거짓말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안다. 목회자는 부득불 말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더욱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화(흥분, 분노)가 난 상태에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¹⁹⁾ 잠언 기자는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고 말한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실언(失言)하기 쉽다. 그리고 잠시 후에 꼭 후회하게 된다.

2) 말은 살아 있고 선약간에 힘을 발휘한다. 말은 아무 존재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람 그리고 천사만이 말을 할 수 있다. 영적인 존재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다.²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해야 했다. 구원초청에서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말을 주의해야 한다.

19) 잠4:23,24, 엡4:31, 잠17:27, 23:7,26, 마5:3-10, 갈5:22,23,16

20) 민14:28, 16:14,38, 롬10:8-10, 사45:23, 민23:19, 뱀전1:24,25

3) 말 할 때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미소를 담아 말하라. 천사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태도가 좋지 못하면 말이 상대방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언제나 약자를 배려해야 하고, 약자에게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²¹⁾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뼈를 녹인다. 부드러움, 친절함, 미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천상의 선물이다.

4) 말을 할 때 다음 4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 a.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말을 참고 넘기면 나중에 큰 득(得)을 볼 수 있다.
- b.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목회자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 생각지 않은 말이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 c. 이 말을 하기 위해 기도해 보았는가? 한 마디 말을 하기 위해 三思一言 해야 한다.
- d.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훗 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²²⁾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 12:36).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목회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e. 영적 상태가 최악일 때 ‘최악의 결정’을 내리기 쉽다. 이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걸으면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21) 욕4:4, 벰전4:11

22) 마12:36, 벰전4:5, 롬14:12

6. 설교(말씀봉사)

헨리 나우옌은 설교는 ‘듣는 이로 하여금 영적 세계에 도달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영적 세계에 도달하도록 도와 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성경에 해박할 것을 말했다. 정말로 그렇다 최고의 설교 준비는 ‘성경에 능통(해박)한 것’이다.²³⁾ 다윗은 대략 15살의 나이로 전쟁에 나갔지만 그 때 그는 이미 물매 투척의 전문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상대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설교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1) 매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설교준비’에 바쳐서 설교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²⁴⁾ 그리고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설교는 하루도 거를 수 없는 노동과 같다. 매일 대부분의 시간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한 때 인터넷에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발레리나인 강수진씨(1967~)의 발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강수진씨는 하루 열 아홉 시간씩 연습하고, 일 년에 천 켈레가 넘는 토우슈즈가 닳아 없어지도록 연습해서 발레리나의 나이로는 환갑이라 할 수 있는 마흔 다섯의 나이에도 여전히 프리마돈나로 활동하고 있다.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를 통해 사람이 살아 나기 때문이다.²⁵⁾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훈련해야 하며, 끊임없는 반복훈련(shuttle run)을 통해 익숙해져야 한다. 철저할 정도로 ‘말씀묵상과 기도’를 반복하라. 이 일에 최대 최선의 시간과 힘을 쏟아 부어라. 반복훈련이야말로 당신을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설교자로 만들어 준다.

23) 삼상17:34,35& 40, 48-50

24) 행6:4, 담전4:15

25) 시119:50, 고전15:45, 행20:32, 히4:12,13,엡6:17,18

2) Story telling으로 그리고 선포식으로 설교해야 한다. 생수 브랜드 ‘에비앙’은 옛날 프랑스의 한 귀족이 병에 걸려 알프스의 작은 마을인 에비앙에서 요양하면서 그 마을의 물을 마신 덕분에 병을 고쳤다는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알렸다. 덕분에 물이 아닌 약수라는 인식이 생겼고, 두 배의 값을 치르면서도 찾는 브랜드가 됐다. 이 이야기는 대표적인 스토리 텔링의 사례로 꼽힌다. 건조한 팩트에 스토리라는 감성을 심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말씀사역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해야 하는 내용의 핵심에 스토리를 심어서 증거해야 한다. 일반적인 설교가 수직적인 형태라면 스토리 텔링은 목회자와 성도가 수평적 관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수평적 관계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동감을 이끌어 내어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선지자적, 선포적 설교가 되어야 함을 늘 인식하면서 설교해야 한다.

3) 설교를 이용해서 목사가 자신의 감정풀이를 해서는 안된다. 강대상은 신약시대 목사의 지성소이다.

4) 원고준비를 꼬박꼬박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원고에서 자유해야 한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 꼼꼼하게 원고를 준비하고, 강단에 오르면 마치 원고가 없는 것처럼 설교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늘 힘이 있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설교자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신있게 회중을 응시하면서 설교해야 한다. 그래야 강력한 전달이 이루어진다. 원고에 매이면 전달력이 크게 떨어진다. 적어도 한 달치의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고서 끊임없이 본문 묵상과 함께 원고를 가감첨삭(加減添削)해야 한다. 기도의 불을 뜨겁게 지피면서 거의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

로 소화하라.

5)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전체 회중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²⁶⁾

6) 설교 할 때 가급적 시사적(時事的)인 이야기는 피하고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지도하는 설교로 유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당회원들이 맥도날드 목사를 찾아와서 자신들은 시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을 듣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 후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복음 메시지에 집중했고, 교회 전체가 전과 다른 큰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무엇보다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

7)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²⁷⁾ 신령한 양식을 성도들에게 신선한 것으로(fresh) 행복하게(blissful) 먹이라.²⁸⁾ 목사는 설교를 잘 해야 한다.

26) 살전2:13,19,20

27) 살전2:7,11

28) 시23, 잠27:23, 마24:44-46